

사유지에 멋대로 길 낸 ‘동적골 산책로’

2010년 10억 들여 ‘현덕사~체육쉼터’ 5.1km 조성

구간중 사잇길 700m 발 통과…소유주, 폐쇄 요청

광주 동구가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야심 차게 조성한 ‘명품 녹색길 동적골 산책로’가 반쪽 산책로로 전락했다. 산책로 중 일부인 사유지에 대해 소유주가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동구청은 “소유주의 길 폐쇄 요구가 완강해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산책로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중심사 입구 학운초등학교 앞 동산마을에서 시작해 현덕사·체육쉼터까지 이어지는 왕복 5.1km의 동적골을 지난 2011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명품 녹색길 무등산 자락 다남길’로 조성했다.

공기 맑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동적골은 경치가 수려하고, 무등산 어느 곳보

다도 평평한 길이 특색이다. 동구도 산책로로 안성맞춤이라고 판단, 주변에 튼튼한 꽃동산을 만들어 튼튼속제를 열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동적골 산책로는 가족 산책로(2.2km), 치유의 숲길(1.4km), 실버산책로(1.5km) 등으로 구성됐다. 평일이면 1000여명, 주말이면 5000여명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할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최근 이 산책로의 일부가 폐쇄됐다. 실버산책로 1.5km 구간 가운데 사유지인 700m가량이 이용 금지됐다. 소유주가 동구에 산책로 폐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산책로가 발 가운데를 가로질러 나 있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 무등산 다남길 동행금지 구역



많이 지나다니는 바람에 발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며 소유자가 폐쇄를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민들에게 이용 금지를 알리는 팸플을 세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다남길 5구간인 실버산책로 전체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어서 시민들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

다”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이용을 금지한 만큼 옆에 나 있는 아스팔트 포장인 주 산책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동구가 조성 당시부터 소유주와 아무런 상의 없이 산책로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동구는 지난 2011년 5구간을 신규 노선으로 개발하며 땅 소유주들에게 동의 받는 과정에서 해당 발의 소유주에게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측은 “개발 당시 길이 자연스럽게 나 있어서 소유주의 동의절차 없이 산책길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송모(30)씨는 “동적골은 광주에서 최고의 산책로다. 건강을 위해 걷는 사람이 아스팔트 길을 걷겠는가, 흙길을 걷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흙길을 폐쇄하고 아스팔트 길로 다니라”는 구정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전문기자 eej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녘 17:47
달출몰 --:--
달지름 11:45

마스크 잊지 마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2/7	보성	구름많음	-4/7
목포	흐림	-1/5	순천	구름많음	-2/9
여수	구름많음	0/8	영광	흐림	-4/4
나주	흐림	-5/6	진도	흐림	1/4
완도	흐림	0/7	전주	흐림	-3/6
구례	흐림	-5/8	군산	흐림	-4/5
강진	흐림	-2/7	남원	흐림	-4/8
해남	흐림	-3/6	축산도	차차흐려져	3/6
장성	흐림	-4/6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남서~서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5	남서~서	1.0~2.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	서~북서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북동 0.5~1.5	서~북서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1.5	서~북서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51	06:43
	--:--	19:00
여수	07:18	01:21
	19:44	13:33

◇주간 날씨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	-3/5	-2/2	-4/2	-4/4	-4/6	-2/7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또래가 내린 벌칙은...“피해 친구에게 편지 쓰세요”

광주가정법원 청소년 참여법정 가보니

고교생 술마시다 시비 붙어 폭력

또래 학생들이 사건 듣고 심리

일기·편지 등 이행과제 내놔

“앞으로 5주동안 자기관찰 일기를 쓰고, 피해를 입은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고, 금연클리닉에도 참여하세요.”

친구를 폭행한 A군에게 또래 청소년들이 내놓은 벌칙이다.

광주가정법원은 18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청소년 참여법정’을 열었다. 이날 참여법정에는 또래 청소년 7명이 배심원격인 참여인단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고등학생들이다.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다른 지역의 또래 학생들로 참여인단을 꾸리는데, 광주가정법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만 참여법정에 회부하는 까닭에 전남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것이다. 이들 참여인단을 이끈 진행인은 보문고 국운배 교사가 맡았다.

이날 사건은 고교 1학년인 A군이 지난 해 여름 밤 늦게 벌인 또래 학생 폭행이었다. A군은 광주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지나가던 또래 학생이 ‘학생들이 술 마신다’고 짜레보고 욕설을 하자 쫓아가 뺨을 1대 때린 사건이다.

광주가정법원은 A군의 아버지에게 ‘청소년 참여법정’을 권했고, 아버지는 “학생을 지도하려는 취지가 좋고 사법절차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이자 삶의 큰 공부가 될 것”으로 판단, A군을 다독여 참여법정



18일 광주가정법원 302호에서 열린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가해 학생과 참여인단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에 참여하게 됐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또래 청소년이 참여인단으로 참여해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이행과제를 부과해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만들고 피해자와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해 4차례 참여법정을 열었고,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이날 참여인단은 가해자인 A군의 비행 사실을 A군에게 직접 듣고, 가정환경 등에 대한 심리를 폈다. A군은 뜻밖의 집안 얘기를 털어놔다.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탓에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고 3남1녀의 자녀들이 돌아가며 어머니의 병간호를 맡았단다. 국 교사가 ‘어머니

가 폭행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A군은 “모른다”면서 눈물을 떨궜다.

참여인단은 ‘과거에도 학교폭력을 한 적이 있느냐?’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는 지장은 없었느냐?’ ‘집에 왜 늦게 들어가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A군은 참여인단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한 다음 최종의견 진술에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A군의 심리와 진술을 모두 들은 참여인단은 A군에게 ▲일기 쓰기 ▲피해자에게 편지 쓰기 ▲금연클리닉 참여 ▲부모와 여행하며 대화하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등 5가지의 이행과제를 재판부에 건의했고, 재판부는 어머니의 병환 등을 이유로 부모와 여행하며 대화하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빼고 참여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군은 앞으로 5주간 일기 쓰기와 편지 쓰기, 금연클리닉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사건 종료’ 또는 ‘가벼운 처벌’을 하게 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 기간동안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현수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청소년 참여법정은 재판에 넘여가기 전 조사 절차에서 또래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서로가 잘못을 공감하고 가해자 스스로 부과과제를 수행하도록 해 앞으로의 비행을 막고 자아존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거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과 관련,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지정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이양 사무인 교육청의 자치 사무인데도, 연구계획서도 없이 신청서만으로 모든 학교를 지정하라는 교육부 방침은 자치업무 침해라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특히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직원

50%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들어 현재로서는 연구학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정교과서 ‘반헌법적’이고 수많은 오류, 편향된 판단 기준이 엿보이는데다, 국정화에 대한 국민 반대 등을 고려하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요청을 충족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남교육청도 같은 지침을 마련해놓은 만큼 사실상 연구학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도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동아여중·고 기간제교사 19명 공모

학교법인 남암학원은 동아여중·고에서 근무할 기간제 교사들을 공개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동아여고의 경우 국어(3)·수학(3)·지리(1)·윤리(1)·미술(2)·음악(1)·체육(1) 등 12명, 여중에서는 영어(2)·과학(3)·체육(2) 등 7명으로 9개 과목에서 모두 19명이다.

희망자는 19일부터 24일까지 학교 행정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학원은 다음달 1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수업 실현

(2일), 심층 면접을 거쳐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학원측은 선발된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과목당 4명씩 모두 36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심층면접을 진행할 평가위원도 10명 중 8명을 외부위원으로 확보했다.

학원은 앞서 동아여중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키로 결정한 데 이어 기간제 교원 채용에서도 외부평가위원을 대거 참여도록 하는 ‘쇄신’ 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설명절 꾸러미 상점

정음 '외갓집똥발' 꾸러미

좋은 것만 모아 담아 **가볍고 내리가고 걱정도 내리가고**

떡국 Set 29,000
한우국거리500g
떡국떡(400g×2)

잡곡 Set 15,000
찰보리 1kg, 찰호미500g
찰누미 500g
유기농찰호미 500g
유기농찰현미 500g

한과 Set 19,000
선해청한과 (200g×2)
대봉꽃감 10과

올리미 Set 29,000
아카시아꿀 600g
미숫가루 800g
둥근마 1kg

장아찌 Set 20,000
무우장아찌1kg
복분자 청외장아찌 1kg

●꾸러미 상품
주문 예약 : 1월 22일까지,
1월23일 일괄 배송

단풍미인쇼핑몰

설맞이 기념! 할인대잔치

영절상품관

쌀/잡곡류 최대 **33%**할인 한우/축산 최대 **25%**할인 건강/가공 최대 **44%**할인 과일/채소 최대 **29%**할인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음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음시상),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블랙데이

오늘 하루를
잡아라!
난장법도 터지는
할인혜택!

다양한 상품구성, 최대 40% 할인
12개업체 16개 상품

1월13일 금

내장산한과 귀리유과 39%+ 햇밀(70g)는마를 찹쌀(50g) 40%+
18,000 11,000 50원정 50,000 30,000 100원정

1월20일 금

김영민수산물 곶감11부각 40%+ 두순산골밀 아카시아꿀(2.4kg) 30%+
54,000 32,400 50원정 55,000 38,500 20원정